

탈북 청소년의 낙인 현상과 대응



이 현 숙
(강남대학교)
(lhs2329@hanmail.net)



유 혜 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sunsolina@hanmail.net)

국문요약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 현상을 분석하고, 이들의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이 낙인을 극복하여 남한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탈북 청소년들은 공식적 낙인, 비공식적 낙인, 자기 낙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공식적 낙인은 남한에 도착한 직후 부착된다. 하나원은 탈북자라는 신분이 공식화되는 공간으로 이 속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의심과 불신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지역사회에 와서 복지관 이용시 출신이 드러나는 명찰을 착용함으로써 공식적 낙인은 심화된다. 또한, 복지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빈민과 탈북자라는 이중적 낙인을 겪게 된다. 한편 비공식적 낙인이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는 편견, 배제, 차별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공식적 낙인과 비공식적 낙인은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 수치심, 낮은 자존감, 회의적인 미래로 나타났다.

이러한 낙인 현상에 대해 탈북 청소년은 저항, 수용, 교정, 지지세력 형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이 부여한 낙인에 저항하다가, 이들을 인정하고 이해하

려고 노력했다. 또한 자기 낙인을 통해 언어를 교정하거나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사회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다른 한편, 자신과 같은 상황의 탈북 청소년과 어울림으로써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남한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낯설음과 편견을 극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낙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탈북 청소년, 낙인, 공식적 낙인, 비공식적 낙인, 자기 낙인, 낙인의 대응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은 매해 평균 1천5백여명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말 현재 약 2만8천여명이 남한에 정착하고 있다(통일부 2015). 이들의 유입양상은 90년대 초 출신성분이 높은 특수계급에서 일반계급으로,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변해왔다(이미지 2006). 초기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지도계층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남한에서 영웅으로 인식되었고 그 만큼의 지원을 받았다. 반면, 90년대 후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북한주민이 북한을 이탈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이들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하였다. 이제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축소되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과거에 비해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졌다(Lankow 2006).

이런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의 입국 또한 증가(교육부 2014)¹⁾하고 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입국한 이들은 타의적으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진은영 · 강명진 · 임태완 2013). 탈북 청소년은 감정통제의 어려움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으며(임상수 외 2008), 남한 사람들의 편견과 배제로 인해 외로움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김영하 2010; 장문강 2008; 이수연 2008). 탈북자체가 청소년들의 심리와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남한사회의 부적응으로 귀결된다(김형태 2004). 학교생활의 경우,

1) 교육부(2014) 교육부 보도자료 2014.07.15. 탈북학생 통계조사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인원(명)	966	1,143	1,417	1,681	1,992	2,022	2,183
전년대비증감 (명,%)		177(18.3)	274(24.0)	264(18.6)	311(18.5)	30(1.5)	161(8.0)

고학년으로 편입할수록 학교적응을 어려워하고(신희정·박선아 2009),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남한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 2006). 이렇듯, 탈북 청소년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남한사회의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부적응의 원인 중 낙인(stigma)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낙인은 자존감을 낮추고, 사회 부적응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고장선 외 2009; 최수형 2008). 탈북 청소년은 남한사회에 들어옴으로 탈북자라는 라벨(label, 꼬리표)을 갖게 된다. 출신성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가지는 효과 때문에 낙인으로 인식된다.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라는 라벨로 인해 편견, 배제,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은 탈북사실로 인해 또래와는 다른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이 대면하는 낙인(stigma)의 현상은 무엇이고, 이러한 낙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낙인 현상과 대응에 대한 고찰을 통해 탈북 청소년이 남한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낙인의 정의와 현상

낙인(stigma)은 고대 그리스에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량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몸에 기호를 새겨 넣은 것이다(Goffman 2009). 낙인은 부정적인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식은 단순히 표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개인과 집단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은 그 사회의 표준화된 관점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앞의 책 2009). 이렇듯 낙인이라는 표식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Corrigan 2000). 즉, 낙인을 가진 자는 ‘조금은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된다(Goffman, 2009: 18).

한편, 낙인은 인식에 영향을 주어 편견(prejudice)을 만들고, 차별(discrimination)행위로 이어진다(Wener et al. 2012, Rusch, Angermeyer, & Corrigan 2005). 낙인은 ‘낙인을 가진 자’와 ‘낙인 지우는 자’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Link & Phelan 2001). 이렇듯, 낙인은 낙인이라는 표식과 함께

편견과 차별이라는 효과를 동반하게 된다.

낙인의 현상은 ‘공식적 낙인(public stigma)’, ‘비공식적 낙인(courtesy stigma)’, ‘자기 낙인(self-stigma)’으로 나타난다(Ali, et al., 2012: 2122; Wener et al., 2012: 749).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태도로 낙인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중의 일반적 태도이다(Wener et al., 2012: 749). 예를 들면, 청소년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공식적 낙인’을 경험한다. ‘비공식 낙인’은 가족, 친구, 낙인찍힌 자와 관계되어 있는 전문가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Ali, et al., 2012: 2122). 비공식 체계가 낙인을 부여하여 그 사람의 가치나 판단을 평가 절하하는 것이다. ‘자기 낙인’은 사회적인 부정적 견해를 내면화하는 것으로 낙인찍힌 자 스스로가 낙인지우는 자들의 관점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Wener et al., 2012: 750). ‘자기낙인’은 ‘공식적 낙인’이나 ‘비공식적 낙인’에 의해 발생한다.

‘자기 낙인’의 경험은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Corrigan & Watson 2002; Link et al. 2001), 청소년비행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진혜민 · 박병선 · 배성우 2011). 타자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타자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들은 타자에 의해 정의된 결핍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다(Corrigan, et al. 2005). 예를 들면 성형수술, 언어교정, 피부표백 등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해결하려 한다(Goffman, 2009; 24). 이렇듯, 낙인을 경험한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낙인에 반응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낙인감은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인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과도기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은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탈북 청소년의 낙인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탈북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북한이탈과정의 외상후 스트레스, 남한사회 적응, 학교생활의 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련한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정향진 2005; 양계민 · 황순택 2008; 이수연 2008; 신희정 · 박선아 2009; 이현심 · 박주현 · 최덕경 2011; 전명희 2011; 진은영 · 강명진 · 엄태완 2013).

북한이탈과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학대, 성폭력, 불안,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 등을 경험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게 된다. 이들이 탈출과정에서 겪은 불안, 공포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곤란은 이후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는데 영향을 미쳐 남한사회 적응에 걸림돌이 된다(정향진 2005; 양계민 · 황순택 2008).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을 같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남한사회의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운 요인으로는 또래보다 많은 나이, 교사의 지지부족, 탈북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학업성취의 격차 등(이수연, 2008)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낮은 학업성취률은 지위상승과 진로탐색에 어려움으로 작용(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9)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은 대학을 안정된 직장과 생활을 하기 위한 터닝포인트로 인식하고 있다(신희정·박선아, 2009). 이들은 비주류에서 탈피하여 주류가 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편견, 경제적 곤란함,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현심 외, 2011).

한편, 몇몇 탈북 청소년 연구들은 실제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였다. 전명희(2011)는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적응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의 점수가 낮아졌으며,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정체성 혼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한 결과 탈북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허은영·강혜영 2010).

이상에서 보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적응 과정에서의 차별과 정체성 그리고 적응모델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의 낙인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²⁾. 낙인감이 적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들 중 하나로만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기존 연구들은 낙인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낙인이 탈북 청소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낙인감이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탈북 청소년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의 낙인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에 의하면 공식적·비공식적 낙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일탈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수형 2008; 고장선·김현옥·김경호 2009; 진혜민·박병선·배성우 2011). 또한 내면화된 '자기 낙인'은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낙인감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조사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미지의 현상에 접근하는데 적절한 방법(Flick, 2009: 22)이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의 낙인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연구방법으로는 다양한 요인들과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앞의 책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낙인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미지의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풍부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Morgan, 2007: 3, 9). 포커스 그룹의 경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타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강점이 있다(Rubin & Babbie, 2011: 302-303). 따라서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면접을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낙인감의 현상과 그 대응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다. 이들은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한 탈북 청소년들이다³⁾.

인터뷰는 3명의 초등학생과 4명의 중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중고생들이 있을 때 이야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 역시 어린 초등학생들이 포함되었을 때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입국의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라 낙인에 대한 인식이 다를 것으로 보여 그룹별로 입국나이가 작고 거주기간이 긴 학생, 입국나이가 많고 거주기간이 짧은 학생들을 포함시켰다.

인터뷰 대상 탈북 청소년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남한으로 입국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하기 어려워서 태국, 몽골, 라오스 등과 같은 제3국을 통해 입국한 경우가 많았다.

3)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청소년 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표 1〉 인터뷰 대상

대상	학년	성별	입국 연령	한국거주 기간	가족	입국 방법	인터뷰 장소
사례 1	초등학교 5	남	4세	8년	부모	부모님과 탈북후 중국을 거쳐 입국	J 초등학교의 교육 복지실
사례 2	초등학교 5	남	9살	3년	부모	부모님과 탈북후 중국을 거쳐 입국	
사례 3	초등학교 6	여	11살	2년	모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거쳐 입국	
사례 4	고등학교 2	여	12살	6년	모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거쳐 입국(6개월)	새터민지원 센터 세미나실
사례 5	중학교 2	남	12살	3년	부모, 쌍둥이 형	큰아버지 입국 후 중국의 지인을 통해 중국, 태국을 거쳐 입국(6개월)	
사례 6	중학교 1	남	9살	5년	부	아버지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중국, 몽골을 거쳐 입국(15개월)	
사례 7	중학교 2	남	13살	2년	부모, 동생	아버지 입국후 브로커를 통해 중국, 라오스를 거쳐 입국(3개월)	

본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하기 위해 탈북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와 관련 기관에 접촉하였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인터뷰 참여서를 전달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부모와 학교담당자, 그리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참여자가 익숙한 장소로 정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학교 복지실과 복지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인천지역의 탈북 학생 특성화 학교인 J 초등학교의 교육복지실에서 진행하였고, 중학생은 동일 지역의 복지기관인 새터민 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했거나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은 추후 개별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녹음 후 전사하여 내용을 분석했다.

질적 연구는 구체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작업이다.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라는 추상적인 작업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Padgett 2001).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자료를 구분하고, 명명함으로써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자료를 충분히 읽고 의미있는 코드를 도출하고, 도출된 코드를 범주로 묶고 범주를 통해 주제로

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앞의 책 2001). 더불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현장과 학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Padgett, 2001: 187).

IV. 연구결과

1. 낙인 현상

낙인의 현상은 공식적 낙인, 비공식적 낙인, 자기 낙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낙인의 공간에서 낙인과 마주하게 되고, 명찰과 복지카드 등 제도화된 체계에 의해 낙인을 경험한다. 한편 주변인들의 편견과 차별, 배제, 괴롭힘 등 비공식적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공식적·비공식적 낙인의 경험은 탈북 청소년이 낙인을 내면화하는 상황을 야기시킨다.

〈표 2〉 낙인 현상의 범주화

범주	내용
공식적 낙인	공식적 낙인의 공간에서 불신의 대상이 된 나
	명찰, 무방비하게 노출된 나
	복지카드, 중복적 낙인
	성적, 공부 못하는 아이
비공식적 낙인	편견, 다르다는 시선
	배제, 말 좀 걸어줘
	냉대와 차별, 화장실에 처박힌 내 책상
	불합리한 대우, 재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자기 낙인	수치감, 아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으면 좋겠어.
	낮은 자존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비관적 생각, 평범하게 사는 것 과연 가능할까

1) 공식적 낙인의 현상

공식적 낙인은 제도화된 낙인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거나, 사법체계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Wener et al., 2012),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가 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 공식적 낙인의 공간에서 불신의 대상이 된 나

탈북 청소년들은 국가 정보원이나 하나원에서 공식적 낙인을 부여 받는다. 하나원 자체는 이들을 탈북자로서 라벨링하는 공식적 낙인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은 하나원에서 다양한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의심의 대상, 불신의 대상이 되곤 한다.

국정원에서요, 아버지랑 제가 나이차가 많이 난다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의심을 받았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자꾸 친아들이 아니라고 물어봤어요.(사례 6)

하나원 들어가기 정말 싫었어요. 답답하고 또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사례 4)

■ 명찰, 무방비하게 노출된 나

낙인은 과거 노예나 범죄자의 몸에 표식을 새기는 것으로 수치스러운 표식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새터민’이라는 명찰을 달아야만 했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감추고 싶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이들은 낙인과 대면하게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선 안 그런데요. 복지관에 놀러 가면 탈북 명찰 달고 앞에 세우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정말 싫어요. (000복지관)저번에 거기로. 정확히 기억은 안나요. 꼭 갈 때 보면 “새.터.민” 이렇게 명찰 달고 어디서 이복했고... 아, 진짜 짜증나.(사례 5)

사례 5가 이야기 할 때 다른 아이들 역시 ‘정말 싫어요’, ‘맞아요’라며 맞장구를 쳤다. 이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한 낙인에 대한 항변으로 보인다.

■ 복지카드, 중복적 낙인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자라는 낙인과 함께 잔여적 복지의 산물인 복지카드를 사용하면서 빈민이라는 낙인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복지카드를사용해요 창피하지만친구들이 물어보면신청하라고해요 탈북말고한국사람
도받을수있다고해요(사례)

카드사용 시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법 물어보고 ... 불편해요.(사례 3)

Ⅰ 성적, 공부 못하는 아이

경쟁이 심한 남한 사회에서 탈북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하는 일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들은 탈북의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업을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저학년에 편입한 경우는 비교적 학업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입학할 경우 학업에 대한 중압감이 심하다. 학업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미래까지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려워요. 원래 북한에서는 학교를 한 번도 안다니고, 중국에서 기숙사 학교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다녔어요.(사례 4)

오자마자 고학년(5학년)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쪽(북한)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
요. 한마디로 기초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어려워요.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고 국어도
다 어려워요.(사례 6)

갈 데가 없어요. ... 공부를 못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사례 5)

2) 비공식적 낙인

비공식적 낙인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주민 등 다양한 비공식적 관계에서 부여하는 낙인이다. 비공식적 낙인은 공식적 낙인보다 청소년의 일탈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성식, 2007). 비공식적 낙인은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자괴감이나 모멸감이 클 수밖에 없다.

Ⅰ 편견, 다르다는 시선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남한사회와 구체적으로 대면하게 된다. 탈북 청소년들은 또래의 아이들과 교사들을 통해 남한사회를 경험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에 왔을 때 남한 친구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을 느낀다. 탈북 청소년들은 처음 남한 친구를 만나는 학교에서부터 낙인감을 겪게된다.

온지 얼마 안되는 애들은 티가 나요. (주변반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같아요. (사례 2)

처음에 왔을 때는 애들이 북한 애라고 자꾸 물어봐요. (사례3)

■ 배제, 말 좀 걸어줘.

한편, 낙인은 남한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탈북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소외당하거나 자신의 출신에 대해 폄훼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북한 애라고 말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는 (나한테) 말도 안하는 거예요. ... 맨 처음에 왕따되는 줄 알았어요.(사례 7)

친구랑 싸웠는데 북한인 주제에... 말짱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사례 3).

■ 냉대와 차별, 화장실에 처박힌 내 책상

낙인은 사회적 편견을 바탕으로 차별을 낳는다. 차별은 특정 대상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행위하는 것이다(서미경외, 2010).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탈북의 이유로 냉대를 받고 무시당하거나 심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북에서 왔다고 오자마자 책상을 바꾸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는 책상을 화장실에다 박고 막 밟고 그러는 거예요.(사례 5)

난 별 잘못도 없는데...우리 반 쉬는 시간에, 우리 반 반장새끼가 엄청 많이 걸렸는데, “야,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많이 걸렸냐?” 그랬는데 저를 짚는 거예요. 저는 딱 한번 걸렸는데 어찌나 열이 나던지 제가 그 애를 한 열 번은 무시했을꺼예요.(사례 7)

싸우다가 지가 질 것 같으면 새터민 주제에...그래요.(사례3)

■ 불합리한 대우, 재들이 먼저 잘못했어요.

탈북 청소년은 남한사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연구 참여자는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간 학생들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에 임하는 교사의 태도에서 불공평함을 느꼈다. 교사가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기 전에 선입견으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낙인감을 느꼈다.

여러 명에서 막 달려드니까 애(OO, 사례 7) 혼자서 불리하니까 친구 필통에 있는 카터

칼을 들었어요. 4명이 위협하니까 (칼을) 들고서리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렇게 일러어요. ‘OO이가 칼 들고 애들 찌르려고 한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애한테 물어본 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왜 커터칼 들었냐고, 커터칼을 왜 들어야만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사례 5)

쌤도 그거(아이들이 잘못된거) 인정하고 제가 잘못된 거는 칼을 찌 거라고 그랬는데와 애(한숨) 쌤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잘못된 친구들을 혼내지 않고 끝남) 정말 그러고 말더란 말이예요.(사례 7)

탈북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도 낙인감을 느낀다. 지역사회는 호의적이지 않게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존재는 이방인이라는 자의식 때문이다. 탈북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공존할 때 좋은 점은 무엇인지를 탈북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냉소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탈북자가 이 동네에 사는 게 좋은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 같아요. ...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사례 5)

이처럼 비공식적 낙인은 남한으로 입국한 이후부터 형성된다. Goffman(2009)은 낙인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낙인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다. ‘우리’에 속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의 냉소적인 시선과 태도를 통해 낙인을 절감한다.

3) 자기 낙인

자기낙인은 공식적 낙인과 비공식적 낙인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나 타자에 의해 발생한 낙인은 내면화된 승인체계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인정된다.

■ 수치감, 아무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으면 좋겠어.

탈북 청소년들은 자신의 출신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남한사람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출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식적 낙인과 비공식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내면화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온 애라고 아이들이 모르는 게 나아요. 물어보는 것이 난처해요.(사례 2)
그냥 어찌다 보니까...솔직히 북한에서 온 게 이슈거리가 되고 궁금해 하고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창피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말 안 해요.(사례 4)

▮ 낮은 자존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탈북 청소년의 자기낙인은 자아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타자로부터 형성된 낙인은 내면화되고 자기 스스로를 가치가 낮은 존재로 평가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소극적 태도로 보게 한다.

뭘 하겠어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사례 3)
(꿈이 이루어질까) 아니요. ...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사례 4)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사례 5)

▮ 비판적 생각, 평범하게 사는 것 과연 가능할까

한편, 탈북 청소년들은 특별한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 자신의 차이가 차별이 되는 과정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의 희망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낙인을 경험한 탈북 청소년들은 이 또한 자신이 없어 보인다. 그럴수록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호소한다.

남한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사례 5).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다가 가고 싶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어려운거 같아요..(사례4)

2. 낙인의 대응

탈북 청소년들은 낙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하기도 하고, 수용적 태도를 보이다가 남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어와 행동을 교정하려고 한다. 또한 지지세력을 형성함으로써 낙인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표 3〉 낙인 대응의 범주화

범주	내용
저항	힘겨루기, 덤벼봐
	낙인을 다른 방식으로 희석시킴
수용	인정, 우리를 잘 모르니까
	이해, 관심있대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교정	언어교정, 남한 말씨로 빨리 바꿔
	행동교정, 적극적 참여
지지세력 형성	우린 탈북 청소년, 난 혼자가 아니야
	새 친구 만들기,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

1) 저항

탈북 청소년들의 낙인에 대한 일차적 반응은 저항이다. 초기에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의 낙인부착을 거부하기 위해 물리적인 저항을 시도한다.

■ 힘겨루기, 덤벼봐

초기에 탈북 청소년들의 새로운 공간과 친구들과의 만남은 배타적인 갈등의 장이 되기도 한다. 특히, 남한사회의 남학생들의 경우 탈북학생에게 텃새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책상을 화장실로 치우거나, 부당한 이유를 들어 시비를 걸기도 한다. 이에 대해 탈북 청소년들은 물리적인 저항으로 맞선다.

처음에는 왔을 때는, 애들이...맞짱뜨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선생님이) 볼까봐 학교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싸웠어요. 저희 둘이 덤벼들면요, 그쪽은 다 덤벼었어요.(사례, 5).

개가 저랑 맨날 힘자랑 하거든요. 개는 약하니까 확확 막 날아가거든요. 저는 막 달리고요. ... 아직도 우리 반에 저를 왕따 시키는 애들이 많아요(사례 7).

■ 낙인을 다른 방식으로 희석시킴

탈북 청소년들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사례 7은 앞에서 겪었던 큰 사건이후에 아이들이 더 이상 텃새를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저항의

과정에서 보여준 강한 이미지는 탈북의 낙인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전에는)한두 새끼는 갑치는데 요즘은 괜찮아요. 아, 한번 쯤 큰 일이 생겨야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 같아요.(사례 7).

2) 수용

낙인에 대한 또다른 대응은 남한사회와 친구들의 태도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친구들의 몰이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다.

■ 인정, 우리를 잘 모르니까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친구들의 오해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나타낸다. 남한사회가 북한에 대한 왜곡되고 제한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과 관련된 뉴스가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한)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부족한 점이라는 생각이 나도 들었어요.(사례 3)

가끔씩 뉴스에서 북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나쁘게) 볼 것 같아요. ... 친구들이 (우리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사례 4)

■ 이해, 내가 이해해야지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한사람의 이해를 받기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로 선화한 것이다.

(우리 담임쌤은) 내보고 북한에서는 명절날만 목욕한다고 때 잘 씻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예요.(다른친구들이 일제히 아우함) 그래서 빠질려고 그랬는데 우리를 잘 모르고 한 말이니 내가 이해해야죠.(사례7)

3) 교정

한편,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낙인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언어를 교정하거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다.

■ 언어교정: 남한 말씨로 빨리 바뀌

탈북 청소년들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어를 교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남한사람과 차이나는 언어는 낙인을 야기시키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티가 나지만...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 친구들) 주변 반응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어요. 처음 온 아이들에게 (사투리)빨리 바꾸라고 해요.(사례 2)

한국에 와서 처음 초등학교 4학년 다녔는데, 그때는 약간 사투리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엄청 궁금해 하고 그랬어요. 5학년 올라가서 사투리를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6학년쯤에는 점점 잊혀져가면서 아예 애들이 북한에서 온 거 모르고.(사례 4)

■ 행동교정: 적극적 참여

탈북 청소년들은 언어교정에 이어 보다 적극적으로 남한 사회가 부착한 낙인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탈북 청소년 지원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교육이나 사회복지서비스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사회의 통합은 낙인을 벗는데 관건이기 때문이다.

(새터민 지원센터)처음에는 오라고 해도 잘 안 왔는데 이제는 매일 와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담도 잘 받고, 뭐든지 할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사례 5)

4) 지지세력

탈북 청소년들이 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 대응은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 난 혼자가 아니야

탈북 청소년들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이상 자신이 혼자이거나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낙인극복

에 도움이 된다.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탈북이라고 놀리는 것 괜찮아요. 나 말고도 탈북 3명이나 더 있어서 괜찮았어요.(사례 1)

(탈북 청소년 친구들) 편해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왕따 시키면 뭐 말지(그래요).(사례 7)

■ 친구되기

탈북 청소년들은 동일집단과 유대관계를 맺는 한편, 남한 친구들과도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탈북 학생들이 낙인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내 짝공애가 다른 애하고 “북한애가 어찌고” 하면서 저를 홍보더란 말이에요. 열나게 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깐 좀 낫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친구가 되었어요.(사례 7)

애들이 처음에는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싫었는데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야 친구가 될 거니까요.(사례 6)

이상에서 보듯이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사회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자기낙인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 낙인에 대해 저항과 수용, 교정과 지지세력 확보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보듯이,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에서 공식적 낙인, 비공식적 낙인, 자기 낙인을 경험하게 된다. 남한에서 처음 발을 딛는 곳은 하나원은 탈북자로서 공식화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탈북 청소년은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낙인감을 느낀다. 지역사회에 와서 낙인은 강화된다. 신분이 드러나는 명찰이나 복지카드의 사용으로 탈북자라는 신분과 빈곤이라는 이중적 낙인을 부여받는다. 한편, 탈북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사회, 학교에서 편견의 시선, 배제, 차별 등의 비공식적 낙인이 발생한다. 이는 자기낙인으로 수용된다. 자기 낙인은 공식적 낙인과 비공식적 낙인의 경험으로 낙인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은 자신의 출신에 수치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평가 절하하고,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낙인 현상에 대해 탈북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응 방법을 취하고 있다. 처음엔 물리적으로 저항하다가 이해라는 수용의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언어와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도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선 문제가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낙인의 문제는 심리·정서적인 문제, 가족문제, 학교문제, 지역공동체와 분단국가의 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세밀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탈북 청소년의 삶의 공간이 지역이기 때문이다(유해숙이현숙, 2014). 따라서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량권을 갖고 탈북 청소년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섬세한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남한 시민들에 대한 인식교육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사회의 왜곡된 인식에 의해 깊은 낙인감을 안고 있다. 분단체제의 피해자인 탈북청소년들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인식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유기회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한국사회의 시민으로, 지역의 주민으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공식적 낙인이 형성되는 하나원과 복지 기관과 관련자들의 인권감수성 교육과 탈북 청소년에 대한 섬세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실천현장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낙인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탈북 청소년이 내재된 낙인에서 벗어나 내적 힘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은 자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왕따에 대한 불안감 등을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탈북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의 방향은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학력향상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청소년들은 이중의 낙인을 갖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낙인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는 학력과 적응 프로그램은 효과적일 수가 없다. 따라서 탈북 청소년들의 낙인을 벗기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낙인의 현상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에 주목한 점, 낙인이라는 좌표를 통해 탈북 청소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낙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불과하다. 향후 낙인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낙인을 부여하는 자를 참여시킨 총체적이고 역동적인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고장선 · 김현옥 · 김경호. 2009.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낙인과 사회적 지지체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1(2), 173-194.
- 김영하. 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21, 223-248.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 연구”. 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서미경 · 김정남 · 이민규. 2010.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와 친숙함이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23-141.
- 신희정 · 박선아. 2009. “새터민 대학생의 체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 질적연구』, 3(1): 101-130.
- 양계민 ·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2), 333-358.
- 유해숙. 2009. “새터민의 무력감 원인과 임파워먼트 전략”. 『동향과 전망』, 77.
- 유해숙 · 이현숙. 201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학연구』, 20, 325-365.
- 이미지. 2006.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교육 적응실태와 개선에의 새로운 접근”. 2006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323-324.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 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18(3), 1005-1127.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현심 · 박주현 · 최덕경. 2011.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3(4), 309-341.
- 임상수 · 정순미 · 서승희. 2008. “새터민 아동을 위한 교육 멘토링”. 서울: 교육과학사.
- 장문강.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다문화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 196-234.

- 전명희. 2011. “새터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임상 사회사업연구』, 8(1), 101-123.
- 정향진. 2005. “탈북청소년들의 감정선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1(1), 81-111.
- 진은영 · 강명진 · 엄태완. 2013.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연구: 무기력에서 희망으로의 거듭남”. 『청소년 포럼』, 34, 121-152.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 13(2), 121-148.
- 최수형. 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3), 33-55.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통계자료”
-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9.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 연구』.
- 허은영 · 강혜영. 2010.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진로교육연구』, 23(4), 39-55.
- Ali, A., Hassiotis, A., Strydom, A. and King, M. 2012. “Self stigma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courtesy stigma in family carers: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 2122-2140
- Corrigan, P. W. 2000. “Mental health stigma as social attribution: Implications for research methods and attitude change”. *Clinical Psychology Science Practice*, 7,48-67
- Corrigan, P. W. C. Watson, Peter, B., Davis, K. E.. 2005. “Mental Illness Stigma: Problem of Public Health or Social Justice?”. *Social Work*, 27(2), 219-225.
- Corrigan, P., Watson, A. M. 2002. “Understanding the impact of stigma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World Psychiatry*, 1, 16-20.
- Goffman, E. 2009. 『스티그마: 장애의 세계와 사회적응』. 윤선길, 정기현(역).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 Flick, U.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외(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 Lankow, A. 2006. “Bitter Taste of Paradis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6, 105-137.

- Link, B. G.,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Review of Sociology*, 27, 363-385.
- Link, B. G., Struening, E. L., Neese-Todd, S., Asmussen, S., & Phelan, J. C. 2001. "Stigma as a barrier to recovery: The consequences of stigma for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ic Services* 52, 1621-1626.
- Morgan, D. L. 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김성재, 오상은, 은영, 손행미, 이명선(공역). 서울: 군자출판사.
- Padgett, D.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역). 서울: 나남출판.
- Rubin, A. & Babbie, E. R. 2011. 『에센스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제2판』. 유태균(역). 서울: 세계이지러닝코리아.
- Rusch, N., Angermeyer, M. C., Corrigan, P. W. 2005. "Mental illness stigma: Concepts, consequences, and initiatives to reduce stigma". *European Psychiatry*, 20, 529-539.
- Wener, S. Corrigan, P. Ditchman, N., Sokol, K. 2012. "Stigma and intellectual disability: A review of related measures and future direction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 , 748-765

● 투고일: 2015. 3. 31. ● 심사일: 2015. 4. 20. ● 게재확정일: 2015. 5. 4.

| Abstract |

**A study on stigma phenomenon and response:
Focusing on North Korean youth refugees**

Lee, Hyun Sook (Kang Nam University)

Lee, Hea Sook (Seou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and the response of the stigma of North Korean youth refugees. Focus group interview was used for the study. This study interviewed North Korean youth refugees who live in In-Chun city.

According to this study, they experienced the stigma phenomenon such as 'public stigma', 'courtesy stigma', and 'self stigma'.

They felt 'public stigma' in the entrance of the Korean institutions for North Korea refugees. Moreover, They experienced 'courtesy stigma' from their South Korean friends and teachers. Courtesy stigma includ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ose 'public stigma' and 'courtesy stigma' influenced that they stigmatized themselves. 'Self stigma' resulted devaluation, low self-estimate and degradation of themselve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stigma, they hide their homeland and tried to speak standard Korean language. They also denied their identity. Familiarity with North Korean youth refugees will decrease stigma. Furthermore, public awareness of them need to be improved. To achieve accomplish this, the government have to provide education programme which reduce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or the people.

<Key words> Stigma Phenomena, Public Stigma, Self Stigma, Courtesy Stigma